

고려여행사 LA 8가와 웨스턴 코너 since 1972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재(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육)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 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Hair World 최 세실리아 213-268-8549 853 S. Western Ave. 코리아타운 로테오 몰	Global Financial & Insurance Life/IRA/사업체/건물/종업원상해/그룹건강 Juliana Jin Kim 818-640-3992 pncglobal@gmail.com Lic#0G10657	SAHARA -HOTEL & SPA Tel: 213-700-9630 66700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info@saharahotelandspa.com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애실) ☎213-500-9393	이길웅(분도)치과 Vine Dental Care ☎ 323-465-2828 954 Vine St. Los Angeles Melrose + Vine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교정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황창연신부님의 평창 생태마을 청국장가루 김재영 베로니카 (213) 905-9282 *수익금은 "예수성심 피정 집" 건립 기금으로 쓰입니다.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장영화 Piano Studio *음대, 대학원 피아노과 졸업 M.M Degree *대학교수직 및 피아노 스튜디오 20년 경험 *각종 피아노 콘콜 다수 입상 *MTAC & SYMF 멤버 Studio (818) 400-1343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서 승애 나탈리아 공인 외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소화 한의원 (체질에 맞는 침, 약) ☎ 213-739-3113 3054 W. 8th st #202 (8가와 뉴햄프셔 코너) 원장 : 박 데레사
리틀도쿄홈마트 생활가전, 의류, 건강, 주방용품 3가+알라메다, 마켓2층 206호 (213)620-0605, (213)280-7911 서 안토니오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구 본욱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48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 • TUNE-UP • BRAKE • CHECK ENGINE • 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테오 갤러리아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 E. 21가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아드리고" 흥 벤자민 818-321-4776	친정 김치 맛있는 친정엄마의 손맛 가주/한남/프라자/도레미 김 아오스딩 (213)623-7088	늘 웃는 치과 임플란트, 교정, 보철, 일반치과 966 S. Western Ave. #207 (323)734-3710, (323)734-3720 이 요한 DDS, Ph.D	부동산 케이티 한(카타리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 하겠습니다. C:213-800-1700 SK Realtor
에어콘 수리 및 설치 최효선(요안나) 626-804-4178	태양여행사 2707 W. Olympic Blvd.#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TBS COPIER SCAN FAX 오 마태오 213-248-1338	에터미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화장품, 생활필수품. 조 마리아 818-653-3313 고 소피아 818-522-4073

2018년 11월 25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나) 제2015호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묵시1.8)

■ 미사 전례

- 제 1독서 : 다니 7,13-14
- 화 답 송: (악보 참조)
- 제 2독서 : 묵시 1,5ㄱ-8
- 복음 환호송: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야! ◎
- 복 음 : 요한 18,33ㄴ-37

•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7:30
- 일요일 오전 7:00
- 오전 9:00(영어미사)
- 오전 11:00(교중미사)
- 평일미사 : 수 · 목요일 오후 7:30
- 금요일 오전 10:00
-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00

◎ 화답송



전례봉사	일시		애설		독서		봉헌	
	금주	07:00	김 미카엘	3구역 1반	1구역 2반	수	백 로즈마리	파티마의 성모 Pr
다음주	07:00	조 프란치스코	3구역 2반	1구역 3반	목	정 엘리사벳	성령 기도회	
	11:00	강 율리아나	3구역 2반	1구역 3반	금	박 안토니아	금요 성경반	

성경의 인물 83 믿음의 동행자, 문제의 해결사 디도

사도 바오로에게는 여러 명의 협조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디도였다. 디도는 그리스 사람으로 사도 바오로를 만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디도는 사도 바오로가 바르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이다. 사도 바오로의 전교활동에는 항상 그가 동행했다. 디도는 믿음직스럽고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신심 깊은 신자였다. 사도 바오로가 디도를 가리켜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진실 된 아들”이라고 소개할 정도였다. 디도는 사도 바오로의 손발처럼 든든한 협조자일뿐 아니라 영적인 부자지간이었던 것 같다. 사도 바오로가 생각할 때 디도는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모범으로 여겼던 것 같다. 사도 바오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상황을 예루살렘교회에 알리려 할 때 모델로 디도를 데리고 갔을 정도였다.

사도 바오로의 충실한 두 제자는 디모테오와 디도였다. 디모테오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디도는 순 그리스인으로 개종한 제자였다. 디도는 디모테오 보다는 더 나이가 많았고 성격과 수완에 있어서도 디모테오 보다 원숙한 듯하다. 고린토 교회의 사태 수습을 위해 디모테오를 보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디도가 파견되어 사태 수습을 한 것을 보면 디도는 지혜와 정치적 수완도 있었던 인물로 보인다. 그런데 디도는 디모테오처럼 바오로의 서신에서 송신자로 이름이 함께 언급된 일이 없고, 사도 행전에도 디도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고린토 후서 등 몇 편의 서간에서 잠시 소개될 뿐이다. 이처럼 철저하게 사도 바오로의 그림자처럼 그의 활동에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디도의 가장 현저한 활동은 뭐니뭐니 해도 고린토 교회의 문제 해결에서였다. 고린토 교회의 분열은 바오로의 큰 관심사였다. 교회가 여러 파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붕괴로 이어질 가장 나쁜 조짐이었다. 바오로는 처음에 디모테오를 보내면서 그를 정중히 대접해 줄 것을 신신당부했다. 그런데 디모테오의 활동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 후 고린토 교회의 사정은 더 악화되었고, 바오로에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득세하여 그들은 거만해져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런 사정을 수습하기 위해 바오로는 급히 고린토를 방문하였으나 결국 이 여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고린토 교회는 더 혼란해지고 바오로는 모욕을 받고 에페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마침내 바오로는 디도를 고린토에 다시 보내어 계속 사태 수습에 노력하게 하였다. 또한 가난한 삶들을 위한 헌금 모금 사업도 벌이도록 지시하였다.

“이보게 디도, 고린토 대부분의 교인들은 믿음이나 언변, 그리고 지식이나 열성이 따를 수 없는 훌륭한 신자들이요, 그들을 잘 사목 해 주시오.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고 은혜로운 헌금 모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오.”

“알았습니다. 분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오로는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토 교회의 사태 수습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또한 구제 사업을 위한 헌금 모금도 성공적이었음을 알고 몹시 기쁘고 만족했다. 바오로는 기쁨에 넘쳤고 만족했다. 드디어 바오로가 고린토에 세 번째로 도착했을 때에는 여러 난제가 쉽게 해결되고 바오로는 다음의 계획인 로마전교를 준비할 수 있었다. 바오로는 교우들 앞에서 디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디도는 나의 참 아들이요, 친구이며,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준 것에 대해 신자 여러분에게도 큰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바오로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 사목을 담당하게 하였다. 디도가 할 일은 교회를 돌보며 원로를 임명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계속 여행하면서 디도에게 서간을 보내어 사목의 지침을 내려주었다.

“디도! 내가 그대를 그레데 섬에 홀로 남겨둔 것은 내가 다하지 못한 사업을 완결 지으려는 것이요, 훌륭한 원로들을 뽑아주어 교회가 자립할 수 있게 해주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 중에 악명 높은 자들이 많소.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 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그대는 그들을 꾸짖어주고 건전한 교리에 부합하는 것만을 가르치시오.”

그레데 섬은 지중해 상에 있는 섬인데 상당한 수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바오로는 디도에게 원로의 임명과 이단의 경계 등을 지시하고, 교회 각계 각층에 대한 교훈과 사회일반에 관한 교훈 등 상세하게 편지를 썼다. 바오로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홀로 남겨두고 중대한 임무를 부탁하고 있는 것은 디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디도는 바오로가 힘 들어하는 일을 담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제자였던 것이다. 그래도 바오로는 어떤 의미에서 참 행복했던 사람이었다. 어려운 문제의 해결사인 디도 같은 제자가 있었으니까.<평화신문, 제647호(2001년 10월 14일), 허영엽 신부(서울대교구 성서못자리 전담)>

주임신부 : 양태현(그레고리오) ☎323-828-7482 / sangoyo@hanmail.net • 종신부제 : 예영해(프란치스코) ☎213-249-2127 / franciscoye@yahoo.com

성삼 소식

☎ **울뜨레아**
• 11월 25일(일) 오후 12:45 성당

☎ **성삼 시네마**
• 추수감사절 연휴로 없습니다.

☎ **병자 영성체**
• 일시: 11월 29일(목)

☎ **은빛 피정(70세 이상)**
• 일시: 11월 30일(금) 오전 10:00 ~ 오후 4:00
• 장소: 성당 및 101호
• 신청마감: 11월 25일(일)까지
• 신청문의: 사회 복지부 ☎(626)689.3311

☎ **사목회의**
• 일시: 11월 30일(금) 오후 7:00 101호.

☎ **첫 토요 신심미사**
• 일시: 12월 1일(토) 오전 8:00(목주기도 오전7:20)
• 미사후에 합동 쉼기도 있습니다.

☎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12월 2일(일) 오후 1:00 성당

☎ **장례 안내**
• 망 자: 故조순원(로즈마리) 향년 105세
• 장례미사: 11월 28일(수) 오전 10:00
• 장 지: Holly Cross Cemetery -Culver City-
• 유 가 족: 박경조(헬레나) 5구역 2반

☎ **남가주 꾸르실로 송년의 밤**
• 일시: 12월 1일(토) 오후 6:00
• 장소: 성 바오로 한인천주교회 (1920 S. Bronson Ave. LA 90018)
• 문의: 송 라파엘 ☎626-710-3783

☎ **성삼 제1회 불링대회**
• 일시: 12월 2일(일) 오후 3:00
• 장소: 리틀도교 마켓플레이스 3층 불링장
• 대상: 일반부, 청년부(청소년)
• 참가비: 일반부 \$10.00/청년부 \$5.00<저녁식사 포함>
• 신청문의: 김정환(프란치스코) ☎(213)494-7981 정덕훈(요한) ☎(213)255-1829

☎ **대림시기 성경 쓰기**
• 복음: 마태오 복음 필사
• 대상: 가족, 개인
• 마감일: 12월 23일(주일)까지 제출
• 문의: 복음화부 ☎(818)399-1817

☎ **성가대 관현악 악기 연주자 모집**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 문의: 김 호노리나 ☎(213)200.3049

주일학교 . 한국학교 . 청소년

☎ **주일학교 휴교(Thanksgiving Day)**
• 11월 25일 추수감사절 연휴

☎ **동전 모으기**(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11월 18일 \$8.58 누계 \$848.08

종식봉사	금주	3구역 3반	비빔밥과 미소국	다음주	3구역 4반		
금주	단체명	시간	장소	다음주	단체명	시간	장소
다음주	성경 봉사자	08:30	성삼홀	다음주	연령회	12:30	101호
	주일학교 복사단	12:00	201호		반장회의	12월 9일(일) 오후12:45	

우리들의 정성 (2018. 11. 18 현재)

교무금	2,510.00	감사 헌금	500.00	교무금/건축헌금/감사헌금 (18명) 구강호,김명자,김애경,김영옥,김옥선,김정환,남궁은,독고근,박계용,박병호,박순희,양효준,윤성한,이달근,이혁주,장인덕,조태오,하문호
주일 헌금	2,018.00	2차 헌금	1,924.00	
건축 헌금	50.00	광고비	0.00	

그리스도 왕 대축일(성서 주간) / Cristo Re dell'universo / Christ the King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자 온 힘을 다하는 신앙인들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들어 모신다. 오늘은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의 왕직(봉사직)에 참여하게 됨을 기념하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따라 새롭게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축일이다.

교황 비오 11세는 1925년에 연중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제정하였다. 또한 한국 교회는 1985년부터 연중 마지막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성서 읽기 운동과 함께 성서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성서 주간을 맞아 모든 신자는 성서를 늘 가까이하고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쉼하여 바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의 운명은 오늘의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절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바로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바로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오늘부터 한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나날의 삶에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도록 격려합니다.

수녀원 : 최 친니아, 유 바실라 ☎ 323-221-2266 • 장례비상연락 : 한완영(베드로) ☎ 213-210-5925